

# 그림 그 이상의 의미 지닌 '초상화'

시영희

###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초상화를 그리는 행위에는 단순한 그림 그리기 그 이상의 의미가 존재한다. 그 행위에는 권력 관계가 있다. 화가는 눈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인물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해석해 캔버스에 표현해낸다. 때로는 '뮤즈'로 불리는 그려지는 대상은 캔버스 안에서 화가의 관점으로 대상을 재창조한다. 오는 16일 개봉하는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이런 일반적인 시선을 쌍방으로 바꿔낸다. 화가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면서다.



18세기 여성 화가에 대한 직접 메시지와 사랑이 담긴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 오는 16일 개봉한다. /연합뉴스

전문 화가 마리안느(노에미 펠랑 분)는 원치 않는 결혼을 앞둔 귀족 아가씨 엘리자(아벨 에넬)의 결혼 초상화 의뢰를 받고 프랑스 브르타뉴의 외딴 섬으로 온다. 그림을 의뢰한 엘리자의 어머니는 "결혼을 원치 않는 딸이 포즈를 취해 주지 않는다"며 마리안느에게 함께 산책하며 보는 것만으로 초상화를 그려 달라고 요청한다.

마리안느는 짧은 며칠의 기간 엘리자를 유심히 관찰하며 얼굴과 몸 각 부분의 그림을 그리고, 이를 통해 초상화를 완성한다. 몰래 완성한 초상화 탓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마리안느는 엘리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마리안느가 그린 초상화에는 "감정이 없다"고 비난한 엘리자는 마침내 그 앞에서 포즈를 취한다.

영화에서는 중요한 '시선'들이 오간다. 마리안느는 초반 일방적인 시선으로

엘리자를 관찰한다. 그러나 마침내 엘리자가 포즈를 취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관찰한다. 그 시선 속에서 때로는 예로탁하고 때로는 애절한 사랑이 싹튼다. 시선이 양방향으로 되면서 전통적인 작가-뮤즈의 관계가 전복하고 재탄생한다.

상화를 그리는 이유 역시 남편이 될 사람에게 엘리자보다 그림이 먼저 도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즈를 취하기를 거부하는 엘리자는 대상화한 그림을 통해 가부장적 시스템 안에 자신을 넣으려는 남성 권력에 대한

할 수 없다.

마리안느와 엘리자의 관계는 천천히 타오르는 불처럼 묘사됐다면, 18세기 당시 전문 예술인으로서 여성 화가의 위치에 대한 메시지는 꽤 직접적이다. 마리안느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진 화가지만,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야 한다. 그의 대사로 "여자 화가는 남자 누드를 못 그린다. 여성 화가의 활동은 제한되었다"는 말이 직접 전달된다.

연출을 맡은 쉐린 시야마 감독은 데뷔작 '워터 릴리스' (2007)을 포함해 '툼보이' (2011), '컬투드' (2014) 등을 만든 가장 주목받는 여성 감독 중 한 명이다. 작년 제72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각본상과 쿼터존려상을 받았고, 올해 제77회 골든 글로브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올랐다. 두 곳에서 모두 '기생충'과 경쟁해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 18세기 여성 화가에 대한 직접적 메시지 칸영화제 2관왕 수상작... 오는 16일 개봉

엘리자는 수녀원에서부터 입었다는 남색 드레스 대신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마리안느 앞에 선다. 마리안느는 자신의 붓터치로 엘리자에게 색을 입혀준다. 그리고 마침내 둘의 감정은 불처럼 타오른다. 그러나 둘의 사랑은 지속할 수 없다.

남성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영화 속에서 남성 권력은 실재한다. 초

거부로 잊히기도 한다.

엘리자의 어머니가 두 번째 초상화를 완성할 것을 지시하고 며칠만 지나면 집에는 엘리자, 마리안느 그리고 그녀의 소피만이 남는다. 이처럼 외부와 외부의 남성 권력과 단절된 세계에서 세 사람 간에는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고 주체적인 결정들이 내려진다. 그러나 이 역시 지속

## "과감한 형식에 선한 의미 있다"

나영석 PD '숏폼 유니버스 예능' 도전



"산만합니다. 낮은 시청률, 각오하고 만들었습니다."

여행, 쿠팡, 힐링 등 예능 트렌드를 이끈 나영석 PD(44·사진)가 '숏폼 유니버스 예능'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도전했다.

나 PD는 10일 마포구 삼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N 신구 예능 '금요일 금요일 밤에' 제작발표회에서 실험에 임하는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금요일 금요일 밤에'는 노동, 요리, 과학, 미술, 여행, 스포츠 6개 소재를 다룬 10분 내외의 짧은 코너가 유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됐다.

나 PD는 "파편화된 프로그램이라 캐릭터가 뭉쳐서 힘을 주고받으며 폭발력을 키우는 문법은 전혀 없다. 드라마처럼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게 가장 보편적인 문법인데 '금요일 금요일 밤에'는 그런 부분이 소거된 프로그램이다"고 설명했다.

그가 '숏폼 유니버스 예능'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건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더이상 TV

앞에 앉아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쪼개진 영상 클립으로 소비한다.

나 PD는 "클립으로 시청하는 분이 많은데 알아서 끊어보라고 하는 게 무책임해 보이는 것 같다. 유튜브 클립처럼 작게 해보자고, 각자 다른 6개 클립을 만들어서 유튜브 영상 넘겨듯 넘겨가는 식으로 해보자는 실험을 해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안방의 시청자라면 어떻게 TV를 소비할까"를 생각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콘텐츠를 보는데 선택적 시청은 가능하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방송이 그렇게 변할 거라는 우리 고민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코너가 많은 만큼 출연진도 다양하다. 이소기는 '제법 삶의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와 양정우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교수는 '신기한 과학나라'와 '신기한 미술나라'를 진행한다.

이밖에 '이서진의 뉴욕뉴욕' (이서진), '아주 특별하고 비밀스런 내 친구네 레시피' (홍진경),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준희·박지윤) 등의 코너가 있다.

나 PD는 과감한 형식을 취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선한 의미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청률도 신경 쓰지않아 어느 시청자가 될 어떻게 보고 어떤 재미를 받았다는 피드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때 코너의 의미와 정서가 선하고 따뜻합니다. 일단 오늘은 6개 코너를 다 보고 다음주부터 어떤 코너를 볼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연합뉴스



## BTS '페르소나' 가온 연간 차트 1위

371만장...집계 이래 최다

방탄소년단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MAP OF THE SOUL: PERSONA) 앨범이 가온 연간 앨범차트 1위에 올랐다.

가온차트가 10일 발표한 '2019년 앨범 차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발매된 해당 앨범은 누적 판매량 371만 8,230장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인 앨범 중 최다 판매량 일 뿐만 아니라, 해당 차트가 생긴 이래 단일 앨범 최다 판매량이다.

방탄소년단이 보컬과 프로듀싱에 참여한 게임 앨범 'BTS 월드 OST'도 총 55

만 3,364장이 팔려 5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러브 유어셀프 승 헤' (LOVE YOURSELF 承 HER),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LOVE YOURSELF 結 Answer),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LOVE YOURSELF 轉 Tear) 등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앨범 3장도 각각 30만 장 이상 팔려 13·14·15위를 차지했다.

2위는 세븐틴이 지난해 9월 발매한 세 번째 정규 앨범 '언 오드' (An Ode)로, 85만 8,872장이 팔렸다.

그 뒤를 누적 판매량 76만 6,294장을 기록한 엑소 정규 6집 '옵세션' (OBSESSION)이 이었다. /연합뉴스

## 그룹 몬스타엑스 주현, 활동 일시 중지 "불안증상 판정...충분한 휴식·안정 필요"

보이그룹 몬스타엑스 메인래퍼 주현(26·사진)이 불안 증세로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12일 공식 SNS에서 최근 주현이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와 진료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불안증상'으로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주현 및 몬스타엑스 멤버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지속적인 치료와 안정을 취하며 주현의 회복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아티스트 건강이 회복돼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기위해 일시적 활동 중단을 결정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주현복귀는 회복 상태와 전문의 소견에 근거해 결정할 것이며 주현 및 멤버들과 신중한 상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소속사는 덧붙였다.

주현은 컨디션 난조로 지난해 말 진행된 몬스타엑스 미국 징글블 투어 공연에도 일부 불참했다. /연합뉴스

## 해체 엑스원, 팬클럽 가입비 환불

최근 해체한 그룹 엑스원(X1) 측이 팬클럽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환불 해주기로 했다.

엑스원 매니지먼트사 스윙엔터테인먼트는 엑스원 공식 팬카페에 "엑스원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엑스원 공식 유료 팬클럽 '원 잇'(ONE IT) 1기 가입비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송비를 포함해 가입 당시 지불한 전액을 환불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환불 절차와 방안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안내하겠다"고 고지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종영한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으로 결성된 엑스원은 이후 해당 프로그램 전 시즌에서 조차 합의가 드러나면서 해체를 결정했다.

이에 일부 팬클럽 회원들은 엑스원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해 팬클럽 혜택을 누리지 못한 만큼 가입비를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입 당시 약 3만 4,000원을 지불했다. 회원에게는 콘서트 및 팬 미팅 선 예매, 공식 스케줄 우선 참여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월 13일 (음력 12월 19일)

<p>48년생 인연이란 소중한 것이다. 60년생 마음 가는대로 행하여도 무방하다. 72년생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84년생 욕심을 줄이면 인생이 편안하다.</p> <p>子</p>	<p>49년생 고민거리는 저절로 해소될 것이다. 61년생 내 앞길에 장애물이란 없다. 73년생 현실 감각이 중요한 순간이다. 85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p> <p>丑</p>	<p>50년생 사랑이란 믿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62년생 뜻은 높으나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74년생 인연이라고 믿는다면 놓치지 말라. 86년생 행동으로 표현하라.</p> <p>寅</p>	<p>51년생 노력과 열정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63년생 첫인상에 속지 말라. 75년생 사랑과 명예를 쟁취한다. 87년생 자존심을 죽이고 적절한 때를 기다려라.</p> <p>卯</p>
<p>52년생 집착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64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76년생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88년생 장수를 잡으려면 말을 쫓아라.</p> <p>辰</p>	<p>41년생 회생 없는 성공이란 없다. 53년생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65년생 믿을 것은 핏줄뿐이다. 77년생 천운이 따르는 날이다.</p> <p>巳</p>	<p>42년생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이다. 54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 66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 주지는 않는다. 78년생 진실을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p> <p>午</p>	<p>43년생 대세를 좇아 행동하라. 55년생 슬데없는 대립각은 세우지 말라. 67년생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는 흘리는 것이 이롭다. 79년생 입 방정 떨지 마라.</p> <p>未</p>
<p>44년생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56년생 희망은 알과 같아서 품어야만 날을 수 있다. 68년생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80년생 긍정의 에너지를 믿어라.</p> <p>申</p>	<p>45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57년생 후회할 일은 아예 시작을 말라. 69년생 운정을 베풀고도 원망을 듣는다. 81년생 지나친 양보는 결코 미덕이 아니다. 개띠</p> <p>酉</p>	<p>46년생 마음에 없는 말은 하지말라. 58년생 전통과 관례를 존중하라. 70년생 하늘이 무어려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82년생 하루가 시원하게 땀 뚫린다.</p> <p>戌</p>	<p>47년생 쥐구멍에도 별 탈 날 있다. 59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71년생 사랑이란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 83년생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p> <p>亥</p>